

##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올해 주제는 “SEEK HIS FACE!”

9월 22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서, 한인 교회 동참 촉구

지난 8월 22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세계기도센터에서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은혜한인교회, 감사한인교회, 주님의 영광교회, 주님세운교회, 갈보리선교교회의 교회 기도팀과 청교도 기도 동역자 기도팀, CBS 중보 기도팀, CMF 선교원 기도팀 등 12개 중보 기도팀에서 온 기도 용사 150명이 기도로나 났다.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 중보기도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해 경고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어서 송정명 목사(미주성서화운동의 공동대표)가 격려 말씀을 전했다. 강순영 목사(준비 위원장)가

2시간 동안 기도를 인도했다. 참석자들은 “다민족기도회”를 위해서, ‘미국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기도 운동이 확산되도록’ 기도했다.

송정명 목사는 “연합중보기도모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다민족연합기도회 예비 폭발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다.

준비 위원회는 성경을 떠난 지도자들이 미국을 이끌 때 미국과 세계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을 우려하며, 미국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대통령과 지도자 선출을 위해 다민족들과 함께 금식 기도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2024년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는 “SEEK HIS FACE!” (부제:



8월 22일(목)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가 열렸다. ©준비위원회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2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이번 기도회는 11월

대통령 및 미국 지도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한인, 백인, 흑인, 히스패닉,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인도네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 1,000~2,000명이 함께 기

도할 예정”이라며, 남가주의 성도와 교회에, 기도대회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태광 목사(310 995 3936) 강태광 목사(사무총장, 323 578 7933)

## “세상을 필터링하라, 자기 중심주의를 깨라 온라인 교육 믿지 말라”



[인터뷰] 새언약학교 (New Covenant Academy, NCA) 교장 제이슨 송 박사

LA 한인타운 내 유일한 크리스천 사립학교인 새언약학교(New Covenant Academy, NCA)가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 캠퍼스의 문을 열었다.

버몬트와 3가에 위치한 LA 나사렛 제일교회 5만 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6개월에 걸쳐 완전히 개조해, K-7학년용을 위한 캠퍼스로 탈바꿈했다.

K-7학년을 위해 새롭게 디자인된 캠퍼스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농구코트와 실외 코트가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을 따라, 모든 교실에 새 가구를 제작해 넣었고, K-2까지 교실 안에는 도서실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교실 공간을 확장했다. 처음 계획 단계 때부터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으며 그 의견을 반영했고,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갖추었다.

새 캠퍼스를 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NCA의 제이슨 송 교장을 만나 새 캠퍼스와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한인타운 버몬트 길에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NCA의 제이슨 송 교장을 만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독교일보

## ‘G20 종교 간 포럼’, 국제적 문제 해결에 기독교 역할 강조

8/19~23, 브라질서 개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윤리적·영적·종교적 문제”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종교 간 포럼’(G20 Interfaith Forum)에서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복음주의 교회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이 포럼에는 라틴복음연맹(Latin Evangelical Alliance)의 회장 후안 크루즈 셀라마레 목사(Juan Cruz Cellamare)와 월드비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World Visio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의

신앙 및 개발 부서 이사 해럴드 세구라 목사(Harold Segura)가 주요 발제자로 참여해 종교 자유, 빈곤, 사회적 불평등 등의 문제에 있어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포럼 개최식에서 연설한 셀라마레 목사는 복음주의 교회의 역사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복음주의 교회는 역사를 통틀어 사회 변혁과 세계 여러 지역의 평등한 권리, 기회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들의 기여는 주요 지역사회 활동에서 나타나며, 가장 취약한 이들이 식량, 교육, 의료 및 환경 관리와 같은 기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로프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이천 주님의사랑 세계선교센터 유명강사초청**  
 제9차 영적대각성세미나  
 ■ 일시 : 2024. 9. 11일(수)~13일(금) (오전 10:00, 오후 2:00, 오후 7:00) ■ 장소 :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장호원수양관  
 ■ 연락처 : 이천시 장호원을 서동대로 8575 M. 010-5453-2768/010-9670-5738

강문호 목사	강영철 목사	김상돈 목사	김일로 목사	박요한 목사	서사라 목사	설동욱 목사	장상길 목사	최병두 목사
성막연구원 원장	한국대학생교회 내셔널채플 회장	DCF 과테말라선교사	필리핀선교사	한국교회연합총회장 명예회장	미국 남가주 한인여성회 회장	예정교회 담임 목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사	예장통합증경총회 회장
유대인 플라신학대학부교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경무부장	미국플라신학대선교학박사	하메스티미선벨로우십대표	한국교회연합총회 공동회장	한국교회연합회 대표회장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안양대학교신대원석사	한국교회지도자협회 상임회장
갈보리선교회담임역임	서울 동노 회장	미주성서화공동회장	기독교한국신문논설위원	예장대신총회서울동노회장	미국브라운대학교의과대학 생물학박사	목회자자문신문발행인	기아대 책본부 이사	교회와경림종교의학회대표회장 역임
봉쇄수도원 원장	서동신학교 학장	KIMNET 국제이사	예수아크리안스쿨 설립자	전 세계인연속선교학교육연구원 교수	미국 워싱턴 크리스천대학교 부총장	기독교채유상당연구원이사장	미국아시안신학연구원이사장	한국교회부활절대회장 역임
성막으로 성경은 말한다,외 80여 권 저술	총회신학교 학장	과테말라한인교회 원로목사	복음주의 신학자	미국 워싱턴 크리스천대학교 부총장	미국 워싱턴 크리스천대학교 부총장	기독교채유상당연구원이사장	한국교회부활절대회장 역임	한국교회부활절대회장 역임
성막 전문가	참원교회 담임목사	월드비전신학교 총장	복음주의 신학자	미국 워싱턴 크리스천대학교 부총장	미국 워싱턴 크리스천대학교 부총장	기독교채유상당연구원이사장	한국교회부활절대회장 역임	한국교회부활절대회장 역임

■ 후원 :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 예장대신총회서울동노회  
 ■ 미국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 216E, 31st, Los Angeles, CA 90011 U.S.A ■ TEL 323-897-5751 ■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 한국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서동대로 8575 장호원수양관 ■ 사무국담당 : M.010-4591-7939 / 010-9281-5738



# “창조된 세계 접해야,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극복”

→ 1면 기사(“세상을 필터링하라...”)에 이어서

질문: 한인타운에 기독교 학교를 열고 25년동안 운영해 왔다. 캠퍼스 확장한 소회를 나누시겠습니까?

“더 잘 해주지 못한 게 아쉽다. 교단이나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맨손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게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다. 이번에 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 것 같고 다음 프로젝트로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저 시설(샤토 길에 있는 8~12학년 캠퍼스)은 아시다시피, 워낙 오래되고 15년 전 이사 들어갈 때 여기보다 더했다. 홈리스가 들어가서 살고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고, 동물들, 대소변부터 시작해서 맨손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카펫을 다 뜯어내고 소독하고, 페인트칠하고, 파이프부터 고쳤다. 15년 전, 그곳에 들어갈 때 2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다.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시설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단계이다.”

“히스패닉 교회, 백인 교회, 한인 교회, 필리핀 교회가 있으니 너무 복잡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교회와 학교는 시간이 겹치는 게 거의 없다. 저희도 일주일 같이 공존해 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번에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 왔다. 라치몬트 동네(Larchmont Village)에서도 오기도 한다. 유대인 부모가 인성 교육 때문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에서 부모님이 홈스쿨링으로 가르치다가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서 일반 학교로 보낸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신들이 가르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아이들이 공교육과 호르몬에 의해 체계인이 되어 버린다.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크리스천 스쿨을 찾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교육, 도구일 뿐, 대안 못 돼 또 하나 교육계의 큰 이변이 뭐냐면, 코비드를 거치며 온라인 학교가 수백 개가 생겼다.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도구’이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아이들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LA한인타운에 유일한 크리스천 스쿨인 새언약학교(New Covenant Academy, NCA)가 2024-25년 새학기를 시작하며 새 캠퍼스를 문을 열었다. ©기독교일보.

사회성도 배워야 하고, 꾸준도 들어야 한다. 재밌는 게임을 통해 교육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교육에도 보면, 패드 트렌드(Fad, For a Day의 약자. 반짝 유행)가 있다. 1990년대에 총체적인 언어 교수법(Whole Language Approach: WLA)이라고 해서 ‘발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트렌드가 나왔다. 책을 전체적으로 읽게 해주면 그 안에서 파닉스(phonics)를 배운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20~30년 지나서, ‘파닉스 없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말이 다시 나온다. 이처럼 희한한 트렌드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쪽으로 다 따라간다. 그런 게 한두 번이나? 몇 년 전에는 ‘스마트 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학교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써보니, 좋은 도구가 아니다. 또 하나의 패드가 3D 프린터이다. 우리도 각 교실에 사줬는데 무용지물이 됐다. 지금은 온라인 교육이 패드로 나타났다.”

“온라인 교육의 모델은 80~90년대 초반에 나온 원격 학습(Distance Learning)이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 분을 90년대 초반에 컨설팅 해준 적이 있다. 존스홉킨스에는 탑 1%의 영재들을 위한 CTY(Center for Talented Youth) 프로그램과 그리고 2~3%의 영재들을 위한 CAA(Center for Academic Advancement) 프로그램

이 있는데, 학생들의 흥미와 실력과 나이에 따른 교재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체점해 주는 것이다. 그게 지금 온라인 교육의 시초이다.”

“그것을 개발한 이들도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름방학 동안 2~4주 영재를 가장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발굴해서 영재 아이들을 대학 캠퍼스에 모아 놓고 가르치게 한다. 그러면 그 2주 동안 6개월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배운다.”

### 최적 일치 시스템

그는 이것이 NCA가 적용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반’의 모체라고 설명했다.

“거기서 나온 게 우리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반이다. 이것을 최적 일치(Optimal Matching)라고 한다. 최적의 교사, 최적의 학생들, 최적의 교재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때 그 안에서 배움은 폭발적이다.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이 15:1을 넘어가면 교실을 운영하는 데 선생님에게 부담이 된다.”

“탑 1% 영재들도 모아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들의 결론이다. 원격 학습을 영재들도 힘들어 하는데 동기부여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온라인에 혼자 주도해서 한다? 말도 안 된다. 동기가 없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면 그것만 하나? 게임 하다가, 공부하는 척하면 부모들은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온라인 교육을 이미 해본 분들은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질문: 새 캠퍼스를 열게 되었는데, 학생 수가 많이 늘었나?

“저희는 일 년에 10%만 늘릴 생각이다. 유기적으로 성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 새로운 부모와 학생이 오면 문화적 충격을 크게 받는다. 약 1년 가량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학업보다 우선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먼저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공부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따라주면 다 할 수 있다. 깨끗한 마음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보지 말아야 하고 말씀으로 필터링해야 한다. 특별히 남학생들은 5학년 때부터 포르노에 빠질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안 들어 오게 하는 것,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들어왔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주에 캠프에 가는데 이유는, 테크놀로지서 떨어져서 자연을 만끽하고 미디어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크리스천 천문학자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도시 안에서만 살고 있다’고 말했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Josh-

ua Tree National Park)만 가더라도 인공 빛이 차단된다. 거기에 가서 우리 눈이 15분 어둠에 적응하면 맨눈으로 은하수가 보인다.”

“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을 봐야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사람들이 만든 것만 보고 사니까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세상이 하는 말만 듣고 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것. 아이들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만 아니라 인포메이션 차단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

“저희는 한 해는 성경공부, 한 해는 목상을 한다. 저는 계속 (말씀을) 심어 놓는다. 아이들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계속 심는 것이다.”

“얼마 전 결혼 30주년이었다. 아내와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한도 끝도 없지만 좋은 일, 잘된 일만 생각하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 사역을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다음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터뷰가 끝나갈 때, 제이슨 송 교장은 한 가지 마음 속에 묻어 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원래 UCLA에서 정치학 Ph.D.를 공부했다. 지도교수님이 제가 박사학위를 마칠 때 쯤, 미주리 주에 학장으로 가시게 되었고 당시 저는 논문을 5 챕터 중 3챕터를 써놨었다. 그 와중에 NCA를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얼마전 사위를 하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그 아픔이 전해졌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과 열매의 종교인 기독교, 그 이면에는 희생과 죽음이 있다. 그의 꿈이 땅에 떨어져 심어져, NCA라는 학교로 꽃 피운 것임을 보며, 2천년 전 말씀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목격했다.

1999년에 설립된 새언약학교(NCA)는 K-12 크리스천 사립학교로 한인 타운에서는 국제학사과정(IB과정)을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UC 계열과 전국 톱 30대 대학등에 진학하고 있다.

## 가정교회 K-타운지역 연합집회

교회의 공동체성과 소그룹 사역이 중요해진 시대에,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을 추구하는 K-타운(코리아타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말씀 집회를 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분들, 혹은 신약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가정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김인기 목사

- 날짜/ 2024년 9월 6일(금) ~ 8일(주일)
- 시간/ 금:저녁 7시 30분, 토:저녁 7시, 주일: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 강사/ 김인기 목사(올랜도비전교회, 북미 가정교회 사역원장)
- 장소/ 갈릴리션교교회 (담임 : 한천영 목사)  
3721 Marmion Way LA CA 90065
- 전화/ 323-332-2350



협찬 : 갈릴리션교교회, LA 사랑의 동산교회, 예수인교회, LA 하나교회, 북미가정교회사역원, 기독교일보



# “생명력 있는 겨자씨, 성령의 열매 맺도록 고통 감내해야”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가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다.

기념예배와 더불어 두명의 명예장로 추대와 서리집사가 세워져 은혜를 더했다. ‘겨자씨가 자라야 하는 이유’(마가복음 4:30-32)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한현종 목사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이것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별볼일 없는 어부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겨자씨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들과 더불어 꿈을 이루셨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겨자씨 안에 엄청난 나무가 될 수 있는 생명력을 심어 놓으셨다. 세상 사람에게는 겨자씨가 작은 씨에 불과하지만 사

실 이 안에 엄청난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곁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이뤄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라나야 한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과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한다”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집



크렌셔장로교회가 창립 2주년 감사예배를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렸다. 예배 후 직분자들이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에 돌아가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 교회에 뿌리 교인으로 심기위져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찢어지고 죽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사람 한사람

이 찢어져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들을 이루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한다”고 했다.

이어 김준기·박정준 명예장로

추대, 오순자 서리집사 임명식이 거행됐다. 크렌셔장로교회는 올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란 표어를 가지고 한해를 시작했으며, 오는 9월 초에 팸데저트로 전교인 나들이를 갈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 밀알의 밤 올해의 게스트는 가수 ‘하림’

올해 2024 밀알의밤은 10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위로(이사야서 40:1)’란 주제로, 한국의 싱어송라이터 ‘하림’을 메인 게스트로 초청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멋진 공연과 함께 그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6년 1월, 팝 록 음악가수로 데뷔한 하림은 ‘VEN(벤)’이라는 3인조 남성 그룹의 일원으로 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2001년 12월 1집 앨범 《다중인격자》를 발표했다. 이후 ‘출국’, ‘난치병’,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등 주옥 같은 노래를 히트시켰다. 현재는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공연 기획자로 ‘기타포 아프리카’, ‘국경 없는 음악회’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림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서울 사랑의교회 등 여러 교회에 초청받아 찬양, 간증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하림의 아름답고 진솔한 삶의 나눔을 통해 우리 한인교도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밀알의밤을 준비하고 있다. 밀알의밤을 통해 모

올해 밀알의밤은 10월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위로’란 주제로 싱어송라이터 하림을 메인 게스트로 초청해 펼쳐진다. ©남가주 밀알 선교단

금된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밀알선교단에서는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총 \$3,012,400을 전달했다.

**밀알의 밤 일정**  
10/4(금) 오후 7:30 ANC은누리교회  
10/5(토) 오후 6:00 감사한인교회  
10/6(주일) 오후 6:00 열반인누리교회  
티켓(\$20) 구입 및 문의: Mialisca.org  
김민선 기자

## “빈곤과 불평등은 윤리적·종교적 문제”

→ 1면 기사 <‘G20 종교 간 포럼’ 서...>에 이어서

셀라마레는 종교의 자유가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이것이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들을 위해 싸우며,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공평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기독교인 보호와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세션에서 해럴드 세구라 목사는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단순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심오한 윤리적·영적·종교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세구라는 “빈곤과 불평등의 지표, 특히 기아와 영양실조를 영적으로 볼 때 부도덕하다. 신앙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러한 지표는 우리의 신념과 기본 토대와 모순되고 우리 민족의 종교성을 경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지표들은 우리 신앙이 성경과 위대한 스승들을 통해 가르치는 희망과 약속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세구라 목사는 기아로 인한 이

주, 아동 노동, 착취 등의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종교 공동체는 이러한 병폐의 근원,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빈곤은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닌 체계적인 불의와 억압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 모두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셀라마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와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 연민,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종교 지도자로서 생명과 가족 보호, 종교 자유, 건강 문제 예방, 이민 문제와 자연 재해 대응 등에서 긍정적인 협력을 보고 있다. 우리의 영향력과 도덕적 권위를 사용해 중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단합을 촉진하며, 공동체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구라는 G20가 농촌 및 소외된 지역의 아동들에게 영양이 있는 음식 접근을 보장하는 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단순한 공공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연민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창립 8주년 주은혜교회, 김경윤 목사 초청 집회 개최

## 8월 25일 주일 예배 설교 "신앙 전수 명령"

올해로 창립 8주년을 맞은 주은혜교회(담임 최호년 목사)는 8월을 특별 선교의 달로 정했다.

주은혜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협력 선교사들을 초청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주일 예배 때 김경윤 목사(광신대 총장)가 창세기 18장 16~19절을 본문으로 '신앙 전수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큰 도전은 신앙의 변질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 물질주의 및 사람 수를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교회들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이다. '정확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의해 교회가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 세대 간 신앙 단절의 문제이다. 본인은 신앙



주은혜교회가 8월 한 달 동안 협력선교사들을 초청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주일예배 때 김경윤 목사(광신대 총장)가 창 18:16-19절을 본문으로 '신앙 전수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독교일보

생활을 충실히 했는데 자녀가 신앙을 잃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라고 운을 뗐다. "성경을 보면,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전수 명령이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한다." 김 목사는 "우리는 말씀에 순

종하기보다 인본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라가 종을 통해 아이를 낳자고 설득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온다. 이후 하나님은 창 17장까지 13년간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 기간에 대

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고 하시며 언약을 세우시고 99세에 할례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이 하나

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김경윤 총장은 본문 18절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며, 이 예언 안에 주은혜교회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일 신앙이다. 우리는 세상과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과 공도를 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신앙을 대물림하자"며 말씀을 마쳤다.

한편, 9월부터 강단에 복귀하는 최호년 목사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은혜교회는 주일 예배를 11시 45분에 드리며 교회 주소는 808 Foothill Blvd La Canada Flintridge, CA 91011 이다.

조셉 리 기자  
웹사이트: www.lordgracechurch.org/

# “사탄의 타겟은 다음 세대, 말씀 전수 끊기면.....”

LA 올림픽과 월튼 거리에 위치한 LA소망선교교회(LA HOPE MISSION CHURCH, 담임 김영호 목사)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서인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23일(금)부터 25일(주일)까지 3일에 걸쳐 부흥회를 개최했다.

23일(금) 저녁 7시 김영호 목사의 개회기도 및 사회로 진행된 부흥회에서 서인석 목사는 "3대 동일 신앙으로 믿음의 담쟁이가 되자"는 주제로 다니엘서 2장 44~47절을 강해하며 "국가의 흥망성쇠도, 사람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각 장의 주제와 각 동물과 동상의 상징적, 역사적 의미 및 신구약 중간기를 개관하며 능력주의와 학벌주의가 아닌, 신앙의 전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잠언 22장 4절(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를 인용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고 말했다.

서인석 목사는 역대하 36장 22~23절에 인용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축은,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성취될 수 있었다며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하신 말씀(렘 29:12~13)을 붙잡고 기도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소망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축원했다.

그는, 다니엘 2장(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셋째로 일어난 '돛 같은 나라'(단 2:39)와 7장의 '날개 넷과 머리 넷이 달린 표범 같은 짐승'(다니엘 7:6), 8장의 '숫염소'(다니엘 8:5)를 알렉산더 제국으로, 2장의 '뭇 나라를 부서뜨리는 쇠 같이 강력한 넷째 나라'(단 2:40~43)를 로마 제

국으로, 그 모든 우상을 깨뜨릴 '손대지 아니한 돌'(혹은 '뜨인 돌', 단 2:34~35절, 45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며, "이 세상 나라는 굉장히 강한 같은데 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말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돌이 뭐냐,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탄이 다음 세대를 공격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공격받는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바빌론은 한 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린다. 마귀, 사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했더니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씀 전수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말씀을 마무리 지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저주한다. 무서운 말이다. 그런데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자녀들에게 학업만 강조하고, 말씀을 전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영생을 받을 자임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임니까?"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C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 센터메디컬그룹

## 2024년 센터메디컬그룹배 시니어 탁구대회

2024년 9월 12일 (목) 9am 플러튼 탁구 아카데미  
241 E Imperial Hwy #350, Fullerton, CA 92835

**시니어라면  
오케이!** 만 64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참여하셔서  
푸짐한 **경품** 받아가시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 경품

경품이 와르르~

### 참가상

참가만해도 상품이 한가득!  
**상품 가득한 구디백**

### 1등

생생한 화질을 볼수 있는!  
**삼성 65" TV**

### 2등

빠른 몸을 상쾌하게!  
**마사지건**

### 3등

먹기만 해도 힘이 나워!  
**프리미엄 홍삼**

### 신청방법

**전화접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888-847-3098**

**현장접수** 플러튼 탁구아카데미  
방문접수 가능

# ◎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합동 여성강도사 허락 청원 “성경 반하는 것” vs “성경 어디에 있나”

## 교단의 여성강도사 고시 놓고 찬반 성명 발표

장로교 9월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정 합동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 이하 여성사역자TFT)의 ‘여성들의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 허락’ 청원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여성사역자TFT의 청원에 대해 예정 합동 신학부(부장 송유하 목사)와 총회신학정책성위원회(위원장 이풍인 목사)가 ‘여성 강도사고시 청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자, 곧바로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먼저 예정 합동 신학부와 총회신학정책성위원회는 8월 22일 ‘총회 신학부는 여성사역자TFT의 여성 강도사고시 청원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성강도사 청원은 총회 역사와 신학에 반하는 것”이라며 “우리 총회는 1907년 독노회와 1912년 제1회 총회로부터 지금 108회 총회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역사와 신학을 변개치 않고 지켜온 유일한 교단”이라며 “1907년 독노회와 1912년 첫 총회 헌법에는 ‘목사는 성찬에 참여하는 남자만 된다’고 명시하고, 이 헌법을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학부는 “기장(1974)과 통합(1994)이 여성안수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이 헌법을 지켜왔고, 83회와 102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불가를 확인했다”며 “금번 여성강도사고시 청원은 여성안수를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경(딤후 2:3장, 고전 14장)과 헌법에 반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강도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 아니다”며 “강도와 성례의 권한은 근본적으로는 노회에 있지,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 아니다. 지교회와 강도와 성례 관리는 노회가 위임한 위임목사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지교회 남녀 전도사는 위임목사 시무를 방조하는 원리에 의해 심방·설교·교육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강도사고시는 강도권 자격이 아니라 목사 장립 과정에 있고, 부목사의 경우도 자의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 지도

와 위임받은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성사역자는 헌법 3장 3조 1항에 따라 이미 설교할 수 있고, 지금 전국 교회가 이 헌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성사역자TFT의 여성 강도권



예정 합동 제108회 총회 둘째 날인 지난해 9월 19일 저녁 회무에서 ‘여성 사역자의 목사후보생 고시와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허락하는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주장과 여성강도사 청원은 사실상 여성목사 안수를 하자는 주장이므로 이를 용인할 수 없다. 또한 여성강도사 청원은 헌법 개정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 청원으로는 처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여성사역자TFT는 수임받지 않은 안건을 청원했다”며 “108회 총회 결의에 의하면 여성사역자TFT에 부여된 직무는 ①여성강도권, 강도사에 관한 것은 전면 취소하고 ②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 여성사역자TFT는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직전 총회에서 취소한 것을 되살려 여성강도권을 허용하자는 청원을 하게 됐으니, 여성사역자TFT에 맡긴 수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청원 자체에 불법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회, 성서한국,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 10개 단체/교회가 결성한 소위 ‘여성안수추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서는 ‘예정 합동 교단 신학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반박 성명서를 8월 28일 발표

했다. 공동행동은 “명색이 장자(長子)를 자임하는 교단 신학부와 신학정책성위원회라면, 그 주장하는 바의 신학적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총회 신학부라면 소속 목사와 교인들에게 건설한 신학 지침을 제시해, 말세에 교단 복음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신학적으로 도울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해당 성명서 내용에는 이른바 ‘신학적’ 이유라고 할 내용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오히려 정치부 성명서로 오해할 정도로 내용 자체가 지극히 정치적이다. 이는 같은 총회 내 부서인 정치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거나 정치부를 무시하는 처사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학적 내용도 아닌, 지극히 정치적인 성명서에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신학부의 3가지 주장을 차례로 반박했다. 먼저 ‘여성강도사 청원은 본 총회의 역사와 신학에 반하는 것’이라는 신학부의 주장에 대해 ‘성명 내용을 보면 교단의 역사와 신학, 헌법이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것처럼, ‘오래된 것’이면 무조건 진리의 표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오래된 것이 진리이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가 문제라면,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맞섰던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요 수십 세기 이어져 온 천주교의 전통에 반기를 든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오래 이어져 온 교단 역사와 헌법이라 할지라도 계속 발전하는 성경해석학의 연구 결과에 기대 개혁해야 할 것은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흔들림 없는 기본 자세 아니겠는가”라며 “총회 신학부의 주장은 마치 오늘날도 갓 쓰고 상투 틀고 다니는 것이 옳다고 벽벽 우기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강도권은 자격증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도권이 노회에 있다면, 왜 총회에서 강도사고시를 주관하고 강도사 인허(미국 PCA 등은 license라고 하는)를 개인에게 하는가”라며 “지금도 남녀 전도사에게 설교 권한이 있어 더 이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면 왜 구태여 총회에서 굳이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우리 교단은 ‘공적 설교자로서의 강도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가? 교단 헌법을 공적으로 무시하는 신학부가 오히려 교단 헌법과 신학을 무시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또 “교단 헌법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면, 교단 헌법 맨 뒤에 헌법 개정을 위한 ‘부칙’은 왜 만들어 둔 것인가. 헌법 부칙 자체가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 진리에 개선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 조항 아닌가”라며 “강도권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 아닌, 그런 말장난과 상관없이 성경 어디에 ‘오직 남자만 목사 안수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고, ‘여자는 목사 안수하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는가. 신학부답게 이 물음에 신학적으로 진지하고 정직하게 답하라”

고 했다. ‘여성사역자TFT는 수임받지 않은 안건을 청원했다’는 셋째 주장에 관해선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여성 강도권 청원이 어쩌서 관계가 없는가. 도대체 어떤 신학적 이유인가”라며 “여성 강도권을 포함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면, 총회에서 도대체 뭐하러 거창하게 TFT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인가”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원 사항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총회 개회 후 보고를 받은 다음 총대들의 집단지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지, 총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총회 신학부가 나서서 ‘불법성’ 운운할 수는 없다”며 “정말 불법성이 있다고 말하려면, 총회에서 신학부답게 ‘신학적인 이유’를 들어 정중히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명색이 장자 교단이라는 예정 합동 총회가 작년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용한지 이틀 뒤 같은 총회에서 앞선 결의를 뒤집는 낯뜨거운 결정으로 성(聖) 총회의 위상을 제발로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고 총회 권위를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다”며 “작년 총회에서 것처럼 몰지각한 행위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또 총회 신학부라는 가면 뒤에 숨어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성사역자TFT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총회가 얼마나 무질서한 조직인지를 만천하에 또다시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대웅 기자



예정 합동 총회가 제108회 총회에서 여성들의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허락했다 취소하자,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에서 총회 이후인 2023년 9월 25일 오후 총회 회관 앞에서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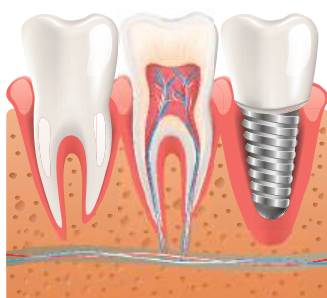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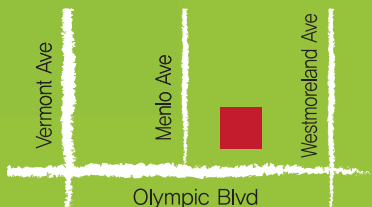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 원장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 “기(氣)의 제왕” 영양칠보석



“병명없이, 이유없이 아픈 분들” 에게  
인체 약 150여군데에 자연의 기에너지파동을 넣어줍니다.

- 자연이 만든 세계 최고의 기 발산석 영양칠보석
- 세계가 인정한 우리 고유의 돌입니다.
- 기와 원직외선이 옥의 약 250배
- 맥반석, 게르마늄의 약 150배
- 황토의 200배



## 영양칠보석 건강에 최고



칠보석 매트(1인용)



칠보석 매트(2인용)

### \*교통사고 환자분에게는 특히 최고입니다

-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프거나 기운이 없는 분
  - 어깨가 결리고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신 분
  -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항상 피곤하신 분,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 및 고령자 분
  - 혈액순환 장애로 아침에 항상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 분
- 이런 분들께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세트(목걸이1, 팔찌2, 발찌2)를 사용하시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석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3인용) 소파방석



세라믹 (1인용) 소파방석



원석 (1인용) 소파방석



**영양칠보석 건강센터**  
952 S Western Ave #110, Los Angeles, CA 90006

**213.663.8052**



# “악의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 존재 증거한다”

## 기독교변증선교연구소 ‘변증학교’서 박명룡 목사 역설

기독교변증선교연구소(대표 박명룡 목사)는 지난 8월 26-27일 1박 2일간 청주서문교회에서 ‘성경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변증학교’를 개최했다.

변증학교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창조하셨나요?’ ‘예수의 부활은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하나요?’ 등, 평소 목회자들이 불신자나 기존 성도들에게 많이 듣는 기독교의 근본에 대한 질문들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개했다. 10년 넘게 매년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통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하나님의 존재, 기독교가 참 진리인 이유 등을 변증해 온 박명룡 목사는, 올해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미나를 별도로 개설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과 인천, 순천 등 전국에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매 강의 후 조별로 느낀 점 등을 나누면서 실제 목회에서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첫날 박명룡 목사는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회에서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과 진정한 신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변증”이라고 말했다.

박명룡 목사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생명체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 ‘NO 하나님, NO 도덕성’, ‘창조주



8월 26~27일 1박 2일간 청주서문교회에서 성경교회 목회자를 위한 변증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가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목사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주제강연에서 우주가 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 과학자들은 우주가 무로부터 시작돼 영원히 계속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우주가 생길 수 있을까?”라며 “우주가 생겨나려면 우주보다 크고, 물질과 시간을 초월하면서도 물질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지성적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창조주’를 기독교는 바로 하나

님이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또 “지구는 지금도 1초에 447m를 자전하고 30km 속도로 공전 중이다. 이런 섬세한 움직임과 균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며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0억 분의 1이라도 더 느리거나 빠르다면 지구는 붕괴되거나 텅빈 곳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우주 생성이 아무런 물질이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이렇게 정교한 질서를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선 “창조주는 우주의 근원이고 지성적이며,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 전지전능하고 정의롭고 완벽한 사랑의 속성을 갖고 계신다”며 “이러한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질서, 생명체의 복잡성, 아름다움과 도덕성, 삶의 의미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악의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며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해진 규범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규범을 만들고 제시한 설계자가 있다는 것이다.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하신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용해 하나님이 아닌 악을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도 당시 일어났던 일을 모두 기억하는 임사체험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그는 “뇌와 심장이 멈춰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는 인간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도 살 수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한다”며 “이런 과학적 보고자료는 인간 영혼이 뇌와 동일하지 않고, ‘인간의 뇌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는 물리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룡 목사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저서 『하나님에 관한 질문』, 『예수님에 관한 질문』 등을 선물하면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 가장 합리적인 신앙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쉽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경교회 목회자를 위한 기독교 변증학교’ 2차 세미나는 오는 9월 9-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 세미나에서는 ‘예수 이야기는 고대 신화에서 베껴온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믿을 만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등의 내용이 공개된다. 이대웅 기자

## [신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 영혼 깊은 곳, 정곡을 찌르는 약손 같은 말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하게 되는 세상과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고백적 언어로 쏟아내는 책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집필한 책이다.

전도서의 ‘헛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낸 저자 오형천 목사(평생교회 담임)는 독자들이 부정을 통해 긍정을, 절망 중에 희망을, 생존으로부터 생명을, 유한을 통해 무한을, 해 아래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말하는 전도서를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길 소원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정말 행복이나?’ 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시도하는 행복은 수고에 따른 삿을 받는 것이지 은혜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이루신 일의 결과를 사람에게 조건 없이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을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고 보신다. 성경

은 이를 낙 또는 행복이라 말한다”고 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은 자만이 생명이 있는 산 존재다.’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호흡이 없는 자는 살았다 하지만 실은 죽은 존재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호흡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를 사람으로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오직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결과까지 만족스럽다면 너무 좋아서 날아갈 기분일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세상이 내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연과 주인의 관계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혹시 연줄이 끊어진 연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빛을 수용하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는 해바라기가 해의 방향에 따라 움직



도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이고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어 놓으셔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전도자는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지혜라고는 하지만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분이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원치 않게 인생의 힘이 빠지고 무장이 해제되어 힘을 추앙하는 사람들로부터 싫어 버린 바 된 신세라면,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하늘 백성이다”며 “성경은 세상의 인과율과 반대되는, 전혀 다른 방식을 말한다. 일관되게 은혜를 증거하며, 은혜라는 선물을 말한다. 주어진 결과는 있는데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려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 '국제 종교 폭력 희생자의 날' 女 학대와 기독교 불관용에 주목



파키스탄 신자들이 교회가 불에 탄 후 주일예배를 위해 야외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오픈도어

뉴욕의 유엔 주재 폴란드 상임대표부가 8월 22일 '국제 종교 폭력 희생자의 날'을 맞아, 기독교 여성 차별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연례 기념일은 2019년 유엔 총회에서 "종교적 소수자를 포함한 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과 테러 행위"를 부각하기 위해 제정됐다. 2024년 미국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 US)가 발표한 '성별 보고서'(Gender Report)에 따르면, 여성과 소녀들이 올해 가장 많이 겪은 5가지 압박 요소는 강제 결혼, 성폭력,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납치다.

오픈도어의 '세계감시목록'(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여성과 소녀들이 기독교 박해국가 50개 중 84%에서 강제 결혼의 위험, 82%에서 성폭력의 위험, 72%에서 신체적 폭력의 위험, 62%에서 납치와 심리적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다. 2024년 국가별 여성과 소녀가 경험한 압박 수치는 8.4점으로, 남성과 소년의 6.6점보다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박해의 심각성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지만,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다양한 유형의 압박과 폭력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이슬람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여성은 비기독교인 남성과의 결혼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이나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돼 군인이나 훨씬 나이가 많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다. 보고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종교나 신념을 근거로 한 폭력과 차별은 종종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며, 해결책 부족과 수치심, 낙인으로 인해 보고가 적다"며 "그 이유는 이러한 폭력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제 결혼·개종, 성폭력, 납치, 할례, 지역사회에서의 배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월 22일 기념일을 맞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위치한 '불관용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Observatory on Intolerance and Discrimination, OIAD)는 유럽 내 증가하는 기독교에 대한 불관용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최신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반기독교적 증오 범죄가 44% 증가했다고 했다.

OIAD 유럽의 전무이사인 안자 호프만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서구에서는 종교 신자에 대한 폭력을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박해 사례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럽의 대부분의 반기독교 공격은 교회와 묘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2023년에 약 1,000건의 반기독교 증오 범죄를 기록했다. 이 중 90%가 교회와 묘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84건은 기독교인을 겨냥한 반종교적 동기의 공격이었다.

김유진 기자

# “미얀마 로힝야 분쟁 7년, 난민촌은 폭력·범죄”

2017년 미얀마 군부의 박해와 폭력을 피해 탈출한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캠프에 머문 지도 벌써 7년이 지났다.

이와 관련,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폭력과 범죄가 급증한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 아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5월부터 6월까지 73명의 로힝야 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에서 몸값을 노린 납치, 유괴, 무장단체 징병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힝야 난민 캠프 치안이 악화되면서, 아동과 가족들은 밤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8%가 범죄와 폭력으로 안전에 우려를 느끼고 있으며, 37%는 밤에 혼자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 지난 조사 기간 동안 치안 문제로 집 밖에 나가기 어려워진 로힝야 난민들은 현금 지원, 교육센터, 보건소 등 필수 서비스 이용률도 감소했다.

치안 불안이 지속되면서, 강제 결혼에 내몰리는 아동도 늘고 있었다. 무장단체가 로힝야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결혼을 강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부모들이 성폭력에서 딸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킨다는 주장도 나왔다. 파루크(가명, 16)는 최근 납치범에 끌려갔다 탈출했다고 한다. 납치범은 당시 파루크의 가족들에게 2만 5천 달러 가량의 몸값을 요구했다. 파루크는 "납치범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집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한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집을 나서서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로힝야 난민 캠프에는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아동이다. 7년간 로힝야 난민 아동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부모와 보호자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밀집도가 높은 난민촌에는 화재와 홍수 및 산사태가 빈번히 발생해 취약한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사무소장 슈문 센굽타는 "현재 로힝야 난민은 범죄와 폭력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7년간 로힝야 난민은 매우 엄격한 이동의 통제와 제약 속에 살아왔다. 이들은 납치와 폭력으로부터 도망갈 곳이 없다"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관리하는 난민 캠프에서는 범죄율이 낮다. 방글라데시 과도 정부는 로힝야 아동의 걱정에 귀 기울여, 모든 난민을 폭력과 불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부터 로힝야 난민 아동과 가족을 위해 교육, 건강 및 영양, 물, 공중 위생 증진, 보호소, 음식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2017년부터 로힝야 난민 대상 약 30억 4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 중 13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로힝야 난민과 수용 국가의 취약 가정 대상 아동보호와 생계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대웅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부터 임자며, 아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를 영혼을 승려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 소양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주일종교개혁 주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요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가 사랑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M.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초.부. 유.중.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보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4: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n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주재: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삼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장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몰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보예배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 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평일학교부)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영 교인 29% “다니던 교회 문 닫으면, 예배 출석 않을 것”



세인트 에이든의 뱀버러. ©내셔널처치트러스트

영국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중 자신이 다니던 지역교회가 문을 닫아서 교회에 더 이상 다시 가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셔널처치트러스트(National Churches Trust)가 영국 기독교인 2,6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곳의 예배에 직접 참석했던 교인들 중 4분의 1(29%) 이상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직접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중 5분의 1(22%) 이상이 “교회가 문을 닫으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북동부(30%)와 북서부(31%) 교인들의 경우 이러한 응답자는 33%에 가까웠다. 또 다른 7%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고,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는 “다른 교회에 출석할 수는 있지만 현재보다는 덜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해당 연령대의 5분의 1(19%)만이 “현재처럼 자주 다닐 새로운 교회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18~24세의 경우도 4분의 1(28%)만이 “새로운 교회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내셔널처치트러스트의 정책 및 홍보 책임자인 에디 톨라시에비치는 “교회 폐쇄에 따른 영향은 여론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교회에 가는 사람의 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

졌다. 교회에 가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이들은 지역교회의 폐쇄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다. 톨라시에비치는 “지역교회를 계속 열여 두면 지역 주민들이 알고 사랑하는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지역 유산을 살리고, 주민들이 푸드뱅크, 따뜻한 공간, 청소년 클럽과 같은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콘서트와 전시회와 같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내셔널처치트러스트는 약 200만 파운드(약 35억 800만원)의 기금으로 250개 이상의 긴급 교회 건축 및 수리 프로젝트를 지원해, 교회를 개방하고 72,0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했다. 교회 수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범위한 건설 및 유산 부문에 가치 있는 전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동요크셔 사우스 홀더니스의 20개 시골 교구의 지역 수장이자 사제인 알리스타어 레어드 목사는 “교회 건물이 문을 닫으면, 특히 마을과 군 도시에서는, 여러 면에서 그 장소의 역사적 심장부를 대표해 오던 건물이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서 버려지게 된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활동하는 교회의 수가 급격히 감소해, 지난 10년 동안 3,500개 이상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 국경 북쪽에서는 스코틀랜드교회가 교인 감소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교회 중 약 40%를 매각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미 개신교인 81% “기독교 영화는 강력한 전도 도구”

대다수의 미국 개신교인들이 기독교 영화를 효과적인 전도 도구로 여기지만, 비기독교인 친구들과 이러한 영화를 공유하는 데는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리서치(Lifeway Research)는 2023년 9월에 수집된 1088명의 미국 개신교인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자들의 기독교 영화와 책에 대한 견해를 다뤘다. 기독교 영화를 효과적인 전도 도구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33%는 매우 동의했으며, 48%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10%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는 기독교 영화가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개신교인의 대다수(72%)는 지난 1년 동안 기독교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의도적으로 시청했다고 답했다. 이 중 30%는 이러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답했고, 42%는 어느 정도 찾는다고 답했다. 반면, 17%는 기독교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찾는 데 다소 찾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7%는 전혀 찾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68%는 지난 1년 동안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48%는 세속 영화를 시청했다고 보고했다. 개신교인 중 30%는 세속 영화에서 발견한 기독교 주제에 대해 다른 신자들과 토론했으며, 21%는 비기독교인과 그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기독교인을 초대해 기독교 영화를 함께 본 개신교인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자의 13%는 앞서 언급된 활동 중 어느 것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단별로는 비종파 기독교인(60%)이 지난 1년 동안 세속 영화를 가장 많이 시청했으며, 그 다음은 장로교인(57%), 침례교인(44%), 루터교인(41%), 그리스도교회 신자(37%) 순이었다. 동시에, 비종파 기독교인(77%)은 지난 1년 동안 기독교 영화도 가장 많이 시청했으며, 침례교인(70%), 루터교인(53%), 장로교인(49%)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기독교인을 초대해 기독교 영화를 함께 시청한 비율은 비종파 기독교인(15%)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침례교인(14%), 그리스도교회 신자(14%), 루터교인(3%), 장로교인(3%)이 이었다. 세속 영화를 통해 기독교 주제를 비기독교인과 토론한 비율은 비종파 기독교인(28%), 침례교인(22%), 루터교인(12%), 장로교인(10%) 순으로 나타났다. 침례교인과 비종파 기독교인은 지난 1년 동안 의도적으로 기독교 영화를 시청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 교단의 응답자 중 78%가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또한, 감리교인(59%), 그리스도교회 신자(58%), 루터교인(57%), 장로교인(55%)도 과반수가 기독교 영화를 의도적으로 시청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서적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권 이상을 읽었다고 답했다. 이 중 3%는 10권 이상, 1%는 8권 또는 9권, 3%는 6권 또는 7권, 11%는 4권 또는 5권, 13%는 3권, 17%는 2권과 기독교 서적 1권을 읽었다고 보고했다. 강혜진 기자



# 美 보수 감리교 간행물 '굿뉴스매거진' 폐간... 회장·부회장, GMC로



굿뉴스 매거진의 발행인 톰 렌프루. ©굿뉴스매거진

1967년부터 미국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에 영향을 끼쳐 온 대표적 보수 신학 출판물인 '굿뉴스매거진'(Good News Magazine)이 폐간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굿뉴스매거진의 회장 톰 렌프루와 부회장 토마스 램브레트는 19일(현지 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은 굿뉴스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사무실을 정리하고, 오는 9월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의 첫 총회 이후 잡지의 마지막 호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가을까지는 주간지 '퍼스펙티브'(Perspective)를 계속 발행하며, 웹사이트는 굿뉴스 사역과 역사를 보존하는 아카이브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렌프루와 램브레트는 모두 2022년에 UMC의 대안으로 출범한 보수 감리교단인 GMC로 소속을 옮겼다고 밝혔다. 두 전 UMC 목회자는 굿뉴스매거진이 교단 내 자유주의로 인해 수천 개의 교회가 GMC로 옮기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이전 소속 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사역과 UMC가 우리에게 제공했던 기회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은사를 인정해 주고, 소명을 확증하게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곳은 UMC였다"면서 "40여 년 전 우리를 기꺼이 환영해준 것을 UMC 내의 일부 인사들은 후회할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삶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교단에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굿뉴스매거진이 없었다면 UMC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들은 "대다수의 전통주의자들은 이미 수년 전에 교단을 떠났을 것이고, UMC는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급진적으로 진보화했을 것이며, 그 안에서 나온 어떤 복음주의 운동도 고작해야 GMC의 겹겹기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동안 UMC는 동성혼 축복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장정에서 삭제할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 왔다. 당시 굿뉴스와 UMC 내 보수 진영은 교단의 장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많은 지도자들은 장정을 따르거나 시행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2019년 UMC 총회 특별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원하는 교회들은 교단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조치를 승인했고, 이로 인해 7,5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탈퇴해 그 중 대부분이 GMC에 가입했다. 보수 교회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한 후, 올해 초 UMC 총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교단 장정에서 동성혼 축복과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전인 2월, 렌프루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총회가 그의 단체가 교단 전체 임의의회에 마지막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유진 기자

# 파리올림픽 투포환 금메달리스트 "신앙에 의한 노력 덕분"



나이지리아계 독일 선수 에미시 오군레예. ©유튜브 영상 캡처

2024년 파리 올림픽 여자 포환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딴 나이지리아 출신의 독일 선수 에미시 오군레예가 귀국 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군레예는 독일 카를스루에에 있는 '그리스도복음도시'(Christ Gospel City)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난 교회에서 성장했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참석한 것이 나의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의 승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라고 간증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녀는 "처음에는 신앙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께 깊이 감사하고 있다. 어릴 때 신앙의 경험이 내 신앙의 기초가 돼 줬고, 운동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금메달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굿은 날씨로 순탄치 않았으나, 그녀는 결국 뉴질랜드의 매디 베셰(Maddi Wesche)를 0.14m로 앞지르는 극적인 승리를 얻었다. 그녀는 "올림픽에 출전하기로 한

결정도 역시 신앙에 의한 노력 덕분이었다"면서 "그저 기도했을 뿐이다. 신앙이 있다면 생각하거나 요청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다. 그 순간 내게 남은 모든 에너지를 모아 그냥 쏟아냈다"고 했다.

그녀는 올림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오직 먼저 주님을 찾음으로써 내려졌다. 얼마 전,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림픽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순간 난 믿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말 그대로 미친 소리처럼 들리지만, 그것을 눈앞에서 봤다. 정말 믿음을 갖게 됐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올림픽 경기를 포함한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집중하는데 도움이 됐다. 올림픽 기간에는 가스펠 'I Almost Let Go'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노비자)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광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정수영 담임목사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아기돌) 오전 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예배(만음제) 오전 11:00

주요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종교동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만음제)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요일예배 오전 8:00 OC예배 오후 7:30 최혁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주일 3부 9:30AM/11:30AM 토 오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6: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병걸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박은호 담임목사

화요일침례회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로)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증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랜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박편,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 혈액순환 개선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신사인 비타민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해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행사, 12~14일

12일 중앙루터교회  
13~14일 샘커뮤니티교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 회장 최영봉 목사)가 “추석맞이 한인 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오는 9월 12일~14일 LA 한인타운의 중앙루터교회와 샘커뮤니티교회에서 개최한다.

남가주교협 지도부는 “이곳 LA에는 아직도 한 끼를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한인 어르신들과 동포분들이 많이 계신다. 남가주교협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동포들에게 정과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교회들과 뜻있는 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정 및 장소**  
9월 12일(목) 오전 11시: 중앙루터교회(987 S. Gramercy Pl. Los Angeles, CA 90019)  
9월 13-14일(금, 토) 오전 11시-오후 3시: 샘커뮤니티교회(125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문의: 행사준비위원장 샘신 목사(수석부회장) / 총무 최영하 목사(213-999-1923)

**추석맞이 ♥ 한인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행사**


• 일시: 2024년 9월 12일~14일  
• 장소:  
▪ 9월 12일 오전 11시 중앙루터교회 (987 S. Gramercy Pl. Los Angeles, CA 90019)  
▪ 9월 13-14일 오전 11시-오후 3시 샘커뮤니티교회 (125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이곳 LA에는 아직도 한 끼를 걱정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한인 어르신들과 동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매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는 조그만 정성이지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동포 이웃간에 정과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행사준비위원장: 샘신 목사  
▪ 사무총장: 최영하 목사(213-999-1923)  
▪ 재무: 권영신장로

• Pay to order: CKCSC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 Check 보내실 곳: 265 S. Western Ave. PO Box #74010 Los Angeles, CA 90004  
• 후원하신 분들에게는 재정보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54대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최영하목사, 수석부회장 샘신목사, 총무 최영하목사**



▶ Check 보낼 곳: 265 S. Western Ave, PO Box #74010 Los Angeles, CA 90004 김민선 기자

##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제9차 대각성 세미나

**이천주님의사랑 세계선교센터유명강사초청 제9차 영적대각성세미나**

■ 일시: 주후 2024년 9월 11일(수)~13일(금) 오전 10:00/오후 2:00/오후 7:00  
■ 장소: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강도원수양관  
■ 연락처: 경기도 이천시 장호읍 서봉대로 8575 E. 010-5453-2768/010-9670-5138

강명호 목사, 강영철 목사, 김성준 목사, 김필로 목사

**주강사 (캐나다인)**

- 성막 연구원 원장 - 한국침례교도사역원장 - DCF 국제필리핀교사 - 필리핀 선교사
- 워싱턴 침례교회목회장 - 대안교회목회장 - 미국침례교신학교학장 - 미국침례교신학교학장
- 감동교회목회장 - 서울 침례교회장 - 미국침례교신학교학장 - 워싱턴 침례교회목회장
- 영재수도원 원장 - 서울 침례교회목회장 - KIMPHET 국제이사 - 에베소서연구소장 겸영사
- 80여 개국 전 세계 유수 침례교 목회장 - 국제침례교목회총회장 - 에베소서연구소장 겸영사
- 영막 연구원 원장 - 침례교회 목회장 - 감동교회목회총회장 - 에베소서연구소장 겸영사

박오환 목사, 서사라 목사, 송동욱 목사, 장상길 목사, 최병두 목사

■ 후원: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 예정대신총회서울동노회



경기 이천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가 제9차 영적대각성 세미나를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강도원수양관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에 각각 개최한다.

세미나 강사로는 성막연구원 원장 강명호 목사, 한국대학생선교회 나사렛형제들 회장 강영철 목사, DCF 국제필리핀 선교사 출신 김성준 목사, 필리핀 선교사 김필로 목사, 전 한국교회연합 상임회장 명예회장 박오환 목사, 미국 LA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서사라 목사,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한기총 통일대학이사 및 기아대책본부 이사인 장상길 목사, 예정총합증경 총회장 최병두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국교회연합 및 예정대신총회 서울동노회가 세미나를 후원했다. 김민선 기자

## 명곡오페라아카데미 음악회, 성황리 개최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총감독: 진복일)가 지난 23일(금) 오후 5시 아로마센터 5층 더윈 이벤트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MBK엔터테인먼트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소프라노 진복일 씨와 제자들은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총 24곡을 불렀다.

오페라 뮤지컬 아카데미는 50~80대까지 다양한 나이의 회원들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명곡 오페라 아카데미 음악회. ©기독교일보

## 오픈뱅크 신임 행장에 오상교 전무 내정

오픈뱅크가 민 김 행장과 최화섭 이사장의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행장 선임도 확정했다. 새 행장으로는 오상교 전무가 결정됐다.

오픈뱅크의 지주사인 OP뱅크는 23일 최화섭 이사장과 민 김 행장의 은퇴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 김 행장의 뒤를 이어 오상교 전무가 신임 행장으로 내정되었다고 밝혔다. 민 김 행장은 2025년 6월 30일 은행장직에서 공식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은행권에서 40년이상,

그리고 오픈뱅크 행장으로 15년째 자리를 지켜온 김 행장은 은행 및 지주사의 이사로서는 계속 일하게 되며 내년 6월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 및 은행의 이사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인 최화섭 이사장은 내년 주주총회 전까지 이사장을 맡게 된다. 새로운 행장으로는 오상교 전무가 내정됐다. 현재 오픈뱅크의 CCO(Chief Credit Officer)를 맡고 있는 오 신임행장내정자는 UCLA 와 퍼시픽코스트뱅크스쿨을 졸업

한 뒤 한민은행권에 서 26년을 일해온 베테랑이다. 지점장 및 대출 업무 중심에서 경력을 쌓아온 오 내정자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오픈뱅크의 CCO로 일해 오고 있다. 김민선 기자



오상교 신임 행장 내정자



미드웨스턴 컬럼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1)



안지영 목사  
미드웨스턴 부교수

우선, 우리 나눔교회를 두고 주변에서는 좀 독특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눔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온 세대 통합예배'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2세대를 위한 영어 예배인 EM(English Ministry)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한인 이민 교회 환경에서 1세대와 2세대를 통합한 예배를 드린

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지속되는 것을 보고 새삼 놀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는 세대를 통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반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것이 원래 성경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의 일환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 본질을 현 시대의 실정에 맞게 구현해 보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본질 추구가 제대로 이뤄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바

라는 것은, 교회의 방향성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방향과 같다는 판단 아래 끝까지 가보려는 거지요.

교회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고민해 봤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라 함은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나타났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좁혀서 본다면, 아마도 신약성경에 언급된 신약시대의 교회, 즉 1세기에 나타난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호가 나타난다는 것은 현 시대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진 많은

목회자들이 모이면 터져 나오는 주제가 바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목회여야 하는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를 추구하며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장애물을 만나 고군분투하는 얘기들이 수도룩합니다. 그래도 그 목회 현장을 떠날 수 없어서 견디고 있기는 하지만 목회자로 사는 삶이 앞뒤가 막혀서 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내가 교회 개혁을 시작하고 교단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집에 오는 우편물의 대부분이 '교회 성장'에 관한 세미나를 소개하는 인쇄물이었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으니까요.

미국 주류사회 교회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 인쇄물 더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목회의 목적이 '교회 성장'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당위성 뒤에 교회의 '성장'이라는 숨겨져 있는 동기도 무시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성장을 말하면서 '질적인 성장'을 언급하지만, 어디 그게 쉬운 걸까요? 실제로는, "오늘 몇 명이나 참석했는가, 헌금은 얼마나 들어왔는가?"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현실적 압박감이 그런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현실이니까요. (다음 회에 계속)

백종근 칼럼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 (5)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건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 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실는다.

여기서 잠시 하위럼이 전주에 부임하기 2년 전(1884)으로 이야기를 돌려보자. 1884년 고부에서 봉기한 동학 농민군들은 5월 11일 황도현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하고 기세를 몰아 5월 31일에는 마침내 전주성에 무혈입성을 감행했다. 농민군에게 전주성을 내주었다는 소식에 놀란 조정에서는 농민군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받아들이고, 전주화약全州和約까지 맺어 수습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마음을 바꾼 고종이 청나라에 원병을 청하면서 사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청나라가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자 일본 역시 텐진 조약을 내세워 곧바로 조선에 군대를 상륙시켜 청일전쟁의 빌미를 만들고 말았다. 이후 벌어진 양국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앞세우며 노골적

으로 내정을 간섭하자, 이미 곳곳에 흩어졌던 동학 농민군들이 척왜斥倭의 기치를 내걸고 다시 쫓기하기 시작했다.

향양을 향해 북상하던 농민군은 공주 근교 우금치에서 관군과 연합한 일본군과 충돌했으나 처음부터 농민군은 신식무기로 무장한 관군과 일본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 승리를 거둔 관군과 일본군은 곧바로 기세를 몰아 전주성 공략에 돌입했다. 전주성에서 일진일퇴 공방전은 주변의 민가 8백여 호가 불에 탈 정도로 치열했으나 수많은 사상자를 낸 채 농민군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하위럼이 전주에 부임한 시기(1896.11.23)는 농민항쟁이 수습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농민군과 관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렸다는 성 안팎 주변에는 참혹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수습의 잔재가 그때까지도 곳곳에 남아있어 처연淒然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여기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요동을 치던 정치적 격변기에 내란했던 선교사들은 동학 농민항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대목이지만 일차

적으로 그들은 선교사였다.

그들의 내한 역사는 사실 매우 일천日淺해, 모순으로 가득한 구한말의 현실을 변혁하려 했던 민중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그들의 처지를 읽어낼 만한 태세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일부 선교사들만이 동학은 최제우에 의해 시작된 조선 고유의 종교이며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농민항쟁의 구심점이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선교사들의 대다수는 소통을 통해 '개종시켜야 할 이교도'異教徒 정도로만 동학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과 개신교의 실제적인 만남은 캐나다 출신 맥켄지(W. J. McKenzie) 선교사가 체험했던 일화가 한 예가 될 것이다. 맥켄지 선교사가 1894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황해도 장연의 소래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황해도 일원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군의 봉기로 해주성이 점령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지켰는데, 놀랍게도 그 마을을 점령한 동학군들은 교회와 선교사를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 후 상황이 반전되어 일본군의 진압으로 동학군이 수세에 몰리자, 이번에는 반대로 소래교회



전주 풍남문

가 동학군의 피신처가 되기도 했다는 거였다.

이 사실을 두고 감리교 선교사 존스(H. J. Jones)는 동학의 '한울님'과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점은 기독교는 초월적 인격신인 데 반하여 동학의 한울님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다고 하는 점이 크게 다르다고 언급하면서 그런데도 동학과 기독교는 일신론적 신관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실제로 동학은 개신교와의 다양한 교섭 속에 동학의 한울님이 기독교의 하나님(God) 개념으로 전이되면서, 경계가 붕괴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후에 동학은 천도

교로 이름을 바꾸며 새롭게 변신을 시도했지만, 동학이 추구하는 개혁과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공통점이 발견되면서 동학 농민군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황해도 신천의 동학 접주 방기창은 선교사 마텔을 만나 복음을 듣고 1907년 장로교 최초의 목사 7인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소접주로 해주성을 공략했던 백범 김구의 개종이라든지 남장로교 선교지역에서도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목사가 된 최종진, 최대진 형제와 하위럼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 동련교회 백낙규 장로 역시 동학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었다.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THEOLOGICAL SEMINAR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주소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BHE, ATS, ACSI, SACS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 Bangkok 2024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http://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음선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주관 | TMTC |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기드온동작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교일보**

문의 |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



■ 뇌치유상담

# 영적 신비적 체험, 뇌에 갇히지 않는다(2)



**손 매 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美 코헨대학교 국제총장

이 책(아름다운 선택)에서처럼 글쓰기나 종교적 열정, 발작, 그 자체를 애지중지하는 환자는 실제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서 질병으로 인해 베스트셀러로 전환될 영적 통찰력은 동반하지 않는다.

역사의 위인들 다수가 측두엽(Temporal lobe, 노란색 부위) 뇌전증(간질)을 앓았다고 말을 한다. 측두엽 뇌전증 학자인 휴즈가 역사의 위인들을 병의 증후와 가족사를 살펴본 후 줄리어스 시저와 나폴레옹, 도스토옙스키가 뇌전증 환자였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역사의 위인들 다수가 측두엽 뇌전증(간질)을 앓았다고 말을 한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대왕, 한니발, 줄리어스 시

저, 단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조나단 스위프트, 헨델, 장자크 루소, 잔다르크, 베토벤, 도스토옙스키, 반고흐, 차이코프스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위에서 열거된 역사의 위인들을 측두엽 뇌전증 학자인 휴즈가 상세히 연구한 결과 줄리어스 시저와 나폴레옹, 도스토옙스키만이 뇌전증 환자였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휴즈는 유명한 인물에 대한 현대의 잘못된 진단과 관련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한다. 수학자 피타고라스(BC 582~500),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 장군 한니발(BC 247~183)이 발작성 장애로 고생한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1475~1564)는 그림을 그릴 때 뇌전증이 아니라 열 때문에 실신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즉 발작이 아닌 의식 상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는 뇌전증이 아니라 공황발작처럼 보이는 행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알코올 또는 마약은 금단 발작이 있는데, 유명한 작가와 예술가 중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금단 발작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루이스 캐럴은 마약금단발작을, 엘저너 찰스 스윈빈(1857~1909)과 빈센트 반고흐

(1853~1890), 트루먼 카포트(1924~1984)는 알코올 금단 발작을 일으켰다. 이처럼 휴즈는 현대의 잘못된 진단과 관련한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은 뇌전증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저혈압, 저혈당, 과도한 감정적 스트레스, 마약이나 알코올 복용 중단 때문에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을 통해 삶의 변화와 심리 영성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뇌기능 장애로 유발되는 영적·신비적 체험이 삶의 변화를 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뇌전증 환자가 아니며 극소수의 뇌전증 환자들만이 발작 시에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을 한다는 것이다. 뇌전증이 정말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한다면 거의 모든 뇌전증 환자는 이를 경험해야 옳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은 어느 사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어린아이나 어른, 모두에게,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영국, 호주 등 각국에서 실시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직접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을 해봤다고 말한 사람이 국민의 20~49%에 달한다고 한다.

종교적·영적·신비적 체험을 설명하기 위해

굳이 희귀한 증후군이나 논란이 되는 증후에 의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기독교에서 바울이 뇌전증 환자였다는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9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신비로운 '육체의 가시'와 그의 신비적 성향 때문이었다. 그 가시가 측두엽 뇌전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바울이 언급한 '가시'라는 단어가 뇌전증(간질)을 뜻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가시'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질병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뜻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뇌전증에 걸렸음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사도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고후 12:2) 체험으로 사도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측두엽은 수많은 지각유형들 중 하나일 뿐이다. 모든 측두엽 뇌전증 환자가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즉 측두엽은 신(God)의 부위가 아니다.

신을 만나는 뇌의 부위가 70년대까지는 측두엽이라고 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앤드류 뉴버그 박사에 의해 대뇌피질 전체라고 말하고 있다. 신을 만나는 영적, 신비적 체험이 뇌에 갇힌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신)은 영(요 4:24)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갇히지 않는다. <끝>

■ 강태광의 신앙 명사 산책 월드쉐어 USA

## 행복을 위한 요리법-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행복을 위한 요리법/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

한 잔의 친절에  
사랑을 부어 잘 섞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많은 인내를 첨가하고  
기쁨과 감사와 격려를  
넉넉하게 뿌려 보세요!  
그러면 1년 내내 포식할  
'천사의 양식'이 됩니다.

A Favorite Recipe / Helen Steiner Rice

Take a cup of kindness,  
Mix it well with love,  
Add a lot of patience,  
And faith in God above,  
Sprinkle very generously  
With joy and thanks and cheer.

And You'll have lots of 'angel food'  
To feast on all the year.

이 시는 미국의 시인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의 시 <내가 좋아하는 요리법/ A fa-

vorite Recipe)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유명한 시인의 유명한 시입니다.

시인은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기발한 착상에서 이 시는 탄생했습니다. 시인은 행복을 위한 노력과 과정을 요리법(Recipe)에 빗대어 행복한 삶을 위한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시인이 손질하고 정리한 행복 자료는 친절(Kindness), 사랑(Love), 인내(Patience), 믿음(Faith), 기쁨(Joy), 감사(Thanks), 그리고 응원(Cheer) 등입니다. 시인이 이런 재료로 만든 음식이 일년내내 풍성하여 포식하게 된다고 노래합니다.

그녀는 많은 신앙시와 영성에 관한 시를 남긴 시인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깊이 있는 시를 쓰게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시인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쾌활하게 살았고 많은 밝은 시를 남겼습니다.

시인은 1,900년 5월 19일에 오하이오

주 로레인(Lorain)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1918년 젊은 나이에 '유형성 독감'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했습니다. 그녀가 취직한 회사는 전기설비회사였습니다.

헬렌은 1928년에 전도유망한 은행원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오하이오 데이톤(Dayton)에 있었던 은행의 부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주식시장의 대붕괴로 실직하고 투자했던 주식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자 괴로워하던 남편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헬렌은 유능한 직업여성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여러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지만, 가장 즐겁게 잘하는 일을 카드회사에서 찾았습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는 20년 동안 김슨 카드회사에서 '축하 인사장'을 편집하는 일을 하면서 그녀는 매일 시(詩)를 쓰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그녀의 시는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녀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

다. 그것은 '퇴행성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 힘차게 꿈을 꾸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카드 중 하나가 TV 쇼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그녀의 시집은 7백만 부(部) 이상 판매되었고 마침내 그녀의 꿈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를 남겼고 아직도 그녀의 시집은 잘 팔린다고 합니다. 헬렌 스타이너 라이스는 향년 80세로 1981년 4월 2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녀의 시를 교황 존 폴 2세나 지미 카트 대통령과 영부인이 좋아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시집, 묵상집 등 총 26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강태광 목사(WorldShare USA 대표, 시인)

##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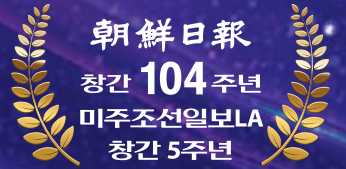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margin: 0;">1등</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 0;">노트북</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margin: 0;">2등</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 0;">아이패드</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margin: 0;">3등</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 0;">에어팟</p>
---	--	---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주최: 기독교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chdailyreporter@gmail.com





미주조선일보LA 창간 5주년 기념

#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 Live in LA

NOW  
TICKET  
OPEN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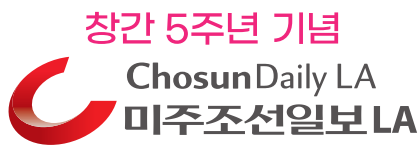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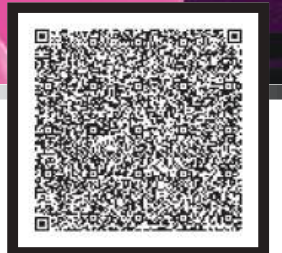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50~\$350



chosunticket.com



axs.com

\$50 | \$65 | \$70 | \$75 | \$85 | \$90 | \$100 | \$110 | \$115 | \$120 | \$125 | \$150 | \$175 | \$180 | \$200 | \$225 | \$250 | \$275 | \$300 | \$350

LIVE CONCERT 10월 13일 일요일 6 PM			미스트롯 3 LA 공연 예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213)315-5177		
상호	전화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삼호관광 LA점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태양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한남체인 LA점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윌셔점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한남체인 델라모점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장석훈의 천종산삼-부에나파크점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장석훈의 천종산삼 LA-올림픽점	(213) 388-1234	2717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도르가 서점-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쉽고 친절한 기독교 교리 가이드

# 기독교 교리, 짧은 시간에 쉽게 알려주고 싶을 때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

김덕중 | 좋은씨앗 | 152쪽 | 12,000원

기독교 신앙의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교리가 어렵다라는 선입견을 없애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적이다. 기독교 교리를 둘러싼 오랜 오해와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며, 단지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교리의 깊이를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신앙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김덕중 목사는 자신의 풍부한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한 성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닌 신앙인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층에게 맞춤형으로 깊이 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한다

제목이 맘에 들지 않았다: '3시간에 끝내는?' 저자도 처음부터 인정했다. "일단 고백부터 해야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과장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아무리 핵심만 뽑아낸다고 해도 3시간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시간으로는 수박 겉핥기도 안 됩니다. 겉모양 보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10쪽)".

저자 김덕중 목사는 인천 동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1년 남짓 수요일에 시간을 통해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 왔는데, 다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 남은 3주를 활용해 그동안 가르쳤던 교리를 총정리하여 강의했고 그것을 이야기식으로 풀어 책으로 냈다.

저자는 책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장대한 기독교 교리의 목차처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큰 틀 혹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더 구체적인 기독교 믿음 체계를 공부하도록 돕는 길잡이로 여겨 달라는 것이다.

저자는 '교리'가 무엇이며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 각각 밝히고 성경론을 시작으로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차례대로 다룬다. 김덕중 목사는 이 책을 굉장히 쉽게 풀어내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쉬운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구원이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등으로 제목을 바꿔 달았다. 목회 현장에서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현상은 사람들이 교리를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담고 있는 시대 배경과 문화도 생소하고, 조직신학처럼 정리된 책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문학 장치를 통해 설명되는 성경 교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며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답을 찾는 데 많은 지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가 신학적 고백임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2천 년 전 유대 땅 나사렛에 살았던 사람인가? 그분은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분은 순전히 사람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파생되는 수많은 질문에 성경의 교리대로 답을 찾아야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계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계시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아버지는 누구신지(신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인지(구원론), 하신 일은 무엇인지(종말론) 등 교리에 교리를 묻고 교리적인 토대를 요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냥 하는 권면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신자는 삶을 반석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위에 쌓는 자다. 교리를 아는 것은 삶을 반석에 세우느냐 모래 위에 쌓느냐만큼 중요한 일이다.

김덕중 목사는 이 책을 '기독교 교리가 생소한 독자'를 위하여 썼다. '기독교 교리가 생소한 당신을 위한 쉽고 친절한 쿼 가이드북'이라는 부제가 이를 설명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교리가 필수적이고, 교리가 생소한 성도에게는 저자가 시도한 것처럼 '쉽고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기독교 교리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만, 사람의 지혜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신비로운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는 저자가 시도한 것처럼 밑그림을 그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자가 겪는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성경을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도 성경을



1643년 웨스트민스터 총회 모습을 담은 그림.

알지 못해서 단단히 오해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힘이다. 교회는 성도를 교리로 교육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수준에 맞게 쉽고 친절한 가르침도 필요하고,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음식도 필요하다.

아마 교회마다 목사나 교사가 사용하는 교리 교재가 있을 것이다. 자체 제작한 교재도 많이 사용된다. 김덕중 목사의 <3시간에 끝내는 기독교 핵심 교리>도 지역 교회에서 사용된 교리 강의로 만들어진 교재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교리교육에 사용할 교재를 찾을 때, 딱 맞는 교재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독교 교리 교재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잘못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많이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면 지역교회 실정에 맞게 활용하면 충분히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이 책을 추천한다. 특히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잘 모르는 대상을 가르칠 때 쉽고 친절한 도우미가 될 것이라고 본다. 3시간 만에 읽는 것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간단명료한 책일지 모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성경의 교리는 모든 독자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정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숨쉬며 살았다는 것,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에이리언: 로물루스> (1)

# 미국, 기독교 대체할 과학주의 상징 <에이리언> 시리즈



외계인에 의한 인류 창조와 종말 이야기를 전하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7번째 작품

**<에이리언> 시리즈, 창조-종말-영생  
나름 체계적으로 '신화' 구축  
창세기와 계시록 뒤튼 SF 신화 창조  
외계인 서사에서 답 찾는 미국 사회  
단순 오락거리에서, 기독교 대체할  
새 종교적·과학적·문화적 가설 호응**

**영화 속의 외계인: 미국 사회의 기독교적 세계관 붕괴와 정신적 공황**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1979년 리들리스콧 감독에 의해 시작된 <에이리언> 시리즈의 7번째 작품으로, <에이리언> 1편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의 이야기를 전한다.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폐쇄된 공간에 여러 무방비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페이스 허거와 제노모프의 희생양이 되는 과정을 소름돋게 묘사했다. <에이리언> 1편과 2편의 결말을 합쳐놓은 것처럼 주인공 여전사 레인(케일리 스페니 분)과 망가진 AI 합성인간 앤디(데이비드 존슨 분)만이 살아남아 위기를 탈출한다.

이번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이전의 모든 <에이리언> 시리즈와 프리퀼인 <프로메테우스>, <에이리언: 커버넌트>의 설정과 서사를 모두 조화롭게 녹여내면서 <에이리언> 팬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에이리언> 3편과 4편, 그리고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사실 관객과 평론가 양측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이전 모든 시리즈 내용을 훌륭하게 이어받아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있다.

작품의 재미와 서사 측면으로만 따지면 <에이리언: 로물루스>는 수작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 <에이리언> 시리즈의 명맥을 끝까지 살려내려는 할리우드의 노력은 미국 대중문화계, 더 나아가 미국 사회의 정서적 공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 다소

안타까움이 든다.

미국 사회는 인간의 기원과 존재 목적, 그리고 인류의 장래 운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불투명한 전망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근원적이고 실존적인 불안에 빠져 있다.

미국의 역사, 문화사가 여타 국가에 비해 결코 오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을 건국한 식민지 이주민들은 선조인 영국의 문화사적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적절하게 운영해 매우 빠르게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시켰다. 미국의 이런 발전적 정치사·문화사의 중추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 이해가 자리잡고 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기독교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인 궤적만 남긴 것은 아니다. 백인 외 인종에 대한 지독한 인종차별과 원주민 학살, 그리고 제국주의적 세력팽창 과정 중 자행한 각종 전쟁범죄와 수탈행위로 점철돼 있는 것이 미국 역사의 실상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일부 진실한 미국인들은 신 앞에서의 평등, 만민에 대한 복음 전파, 무지와 인습 타파라는 기독교적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았다.

그나마 이런 선의에 찬 기독교 문화전통이 미국을 기존의 다른 제국주의 열강 및 패권국들과 구별해주는 표지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근래 미국 사회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인간 이해에 밀바탕을 둔 문화사적 유산을 전부 내다버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진보적 정치관, 다양성을 우상화하는 실험적 윤리관, 이성과 책임보다 감정과 권리에 치중한 삶의 자세가 청교도적 삶의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 속의 창조주: 성경의 창조론과 종말론을 비튼 SF 신화의 등장**

이런 실험적 풍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다수의 미국 대중은 현재 미국 실상을 인류의 진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것은 원

래 서구 인권, 평등, 복지 개념을 정립한 기독교 윤리의 껍데기만 이어받은 채, 그 정신적 기반은 제거해버리는 파괴적 해체에 불과하다. <에이리언> 시리즈는 이런 파괴적 해체를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대중문화 현상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에이리언> 시리즈 줄거리는 단순히 우주 괴물들과 싸우는 SF 서사가 아니다. 이 시리즈는 인류의 기원, 외계인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 AI와 인류의 공존, 그리고 우주로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지구의 멸망을 극복한 인류의 종말론적 미래 같은 논제들을 건드리는 서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에이리언> 시리즈는 미국 학계에서 신학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생각할 거리를 여럿 던져주는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에이리언> 시리즈를 중심논제로 삼는 철학 연구논문집, 『Alien and Philosophy: I Infest, Therefore I Am』이 출판된 적도 있다.

<에이리언> 시리즈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서사와 설정을 담아냈던 작품은 아니다. 적어도 프리퀼 1편인 <프로메테우스> 이전까지 원래 <에이리언> 시퀀 시리즈는 정체불명의 우주괴물과 싸우면서 인간과 AI의 존재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정도의 SF 작품이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에서 인류를 창조한 엔지니어 즉 스페이스 자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부터, 이 시리즈 전체의 서사 진행 방향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에이리언> 시리즈는 인류가 고도의 문명을 이룩한 외계종족에 의해 창조됐고, 그 창조주들이 피조물인 인류의 종말을 위한 도구로 제노모프를 선택했다는 신화적 세계관을 펼쳐내기 시작했다.

이렇듯 창조, 종말, 영생에 대한 나름의 체계적 이야기를 구축한 <에이리언> 시리즈는 한 편의 신화라 부르기에 부족한 없는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다. 선사 시대에 생겨난 세계 각지 신화들도 이런 식의 '개연성 있는' 상상력을 통해 창작됐을 테니, <에이리언> 시리즈도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신화체계라고 볼 수 있다.

<에이리언> 신화 속에서 창조주 즉 신 역할은 엔지니어가 맡고 있고, 인류

를 괴롭히는 대적자, 마귀, 혹은 '짐승(계 13:1)' 역할은 페이스 허거와 제노모프가 맡고 있다. 그리고 전 우주적 거대 기업인 웨일랜드 유타니 사(社)와 이 회사가 제작한 AI 로봇들은 짐승들에게 매혹돼 그들을 섬기는 세력들로 등장하고, 인류는 이 악의 세력들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고통받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기묘하게 뒤튼 이 SF 신화는 기존 미국 사회의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대체하려는 문화적 동기를 반영한다. 성경의 영감으로 성경을 통해 전해진 창조주와 천사와 인간과 구원과 종말의 진리를 내다버리고 있는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 <에이리언> 같은 유형의 과학주의적 서사는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준다.

<에이리언> 시리즈만 본다면 단순한 오락거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회에는 외계인을 창조주나 인류 진화의 조력자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이언톨로지'처럼 외계인이 인류의 기원이라고 가르치는 거대 종교도 존재하고, 로스웰 UFO 추락 음모론을 사실처럼 여겨나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미국 사회에서는 원래 기독교 창조론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창안된 유사과학인 지적 설계론을, 초월적 외계지성체나 외계종족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외계인 관련 사이비 종교나 유사과학 혹은 음모론은 순전한 흥밋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원래 기독교 문화를 밀바탕 삼아 발전을 이룩했기에,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사하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적·과학적 혹은 문화적 가설이나 상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새로운 신화들은 많은 미국인들이 비기독교적 인 정체성과 삶의 태도를 정립하는 데 제법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과 인간 이해를 배척하는 미국 민주당의 문화적 성향을 대표하는 두 대통령, 오바마와 바이든. 오른쪽은 클린턴. ©페이스북

**ANC 온누리교회**  
ALL NATIONS CHURCH - BKD

성장하는 도시, 중가주 베이커스필드 지역에서 섬기실  
**풀타임 부목사를 찾습니다**

- 자 격 : 정규 신학교(M, Div.) 졸업자, 미주이민교회 사역 경험자 및 이중언어 설교 가능한 자
- 사 역 : 2세 교육부, 교회 사무/목회 행정
- 사 례 비 : \$5,800 + 이사비(moving fee) (면담 후 추후 확정)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소명, 간증, 신분 외), 설교 2편 (이메일: bakersfieldanc@gmail.com)
- 제출기간 : 총원시까지
- 사역환경 : 교인 총 150명 (성인 100명, 교육부 50명)
- 문 의 : 오재현 장로 (661-472-6138)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박성호)**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 661-831-2262  
www.onnuribk.com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 계속되는 ‘묻지마 살인·폭행’... 교회의 역할은

## 인명 경시와 사회적 불안 경고 개별 사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안전 못 느끼면 유대감 약화돼

최근 우리 사회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충격적인 범죄들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대낮 거리에서조차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극악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인명 경시 풍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으며, 인간 생명 존중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성경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이 계명은 단순히 물리적 살인 금지를 넘어,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간 생명은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가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무시하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상기시켜 준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물리적 살인뿐 아니라, 마음 속에서 타인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모든 행위도 금지하는 의미로 확대될 수 있다. 이 계명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그 인격과 존엄성도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 준다. 2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묻지마 살인’을 예고한 40대 남성, 일본도를 이용해 살인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범죄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범죄들은 개별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경고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범죄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이다. 범인은 이유 없이 선택된 사람을 목표로 삼아, 일상적인 공간에서 예고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강한 불안감을 주고, 누구나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과 불신이 조성되며, 사람들은 더 이상 일상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공포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킨다.

이 같은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개인들은 신경증적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경증적 불안은 무의식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며, 사회적 규범과 개인적 욕구 간의 충돌로 발생한다.

이러한 불안은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 대인기피,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로 이어진다. 결국 이러한 불안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폭력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면, 사람들은 자신도 언제든 이러한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는 외출을 꺼리거나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회피 행동으로



관련 보도 화면. ©SBS 캡처

이어지며,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 이러한 고립이 심화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대인관계를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 문제로 확대된다.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과 고립은 ‘인격적인 살인’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격적인 살인’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한 사람의 인격, 자존감, 정신적 안정 등을 파괴하는 행위로 지속적 모욕, 비난, 무시, 정신적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격적인 살인’은 특히 학교, 교회, 가정 등 대인관계 속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해자에게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나 은둔, 나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불만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종교 공동체에서는 목회자의 한마디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권위를 내세워 분노를 표출한다면, 이는 ‘인격적인 살인’의 또 다

른 형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종교적 권위가 피해자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인명 경시 풍조를 바로잡고,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강화해 신경증적 불안을 예방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적극 앞장서서 정신 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학교와 가정, 교회 등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숙고하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최원호 목사

# “과테말라, 인구 절반 이상 빈곤” ... 기독교계, 지원 촉구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 과테말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국과 시민사회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립통계연구소(INE)가 발표한 2023년 국가생활조건조사(ENCOVI)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56%가 식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최소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심각한 경제 침체와 불평등의 연속성을 반영한다. 또 농촌 지역과 원주민 사회가 빈곤율이 70%를 넘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다.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이션, 교육, 건강, 깨끗한 물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악화됐다. 빈곤은

물질적 박탈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와 자연 재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이어진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사업으로 인정받은 복음주의 목사 주브날 프라도(Juvenal Prado)는 “과테말라의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영적 도전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다가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함께 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과테말라의 복음주의 교회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를 돕고,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식량, 의약품,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고통을 덜어주고 기초부터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빈곤에 대한 해결책은 자선에만 의존할 수 없다.

포괄적인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모든 과테말라인에게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시행하려면 정부, 비정부 기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프라도 목사는 “과테말라의 빈곤 상황은 또한 연민과 연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눈을




과테말라의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과테말라시. ©위키미디어

감을 수 없다. 공동선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적 책임”이라고 했다.

강해진 기자

전도서 말씀 묵상



오형천  
전도서 말씀 묵상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판매가격 **\$20**

지은이 : 오형천  
출판사 : 도서출판 대장간

[신간]


##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영혼 깊은 곳, 정곡을 찌르는 약손 같은 생명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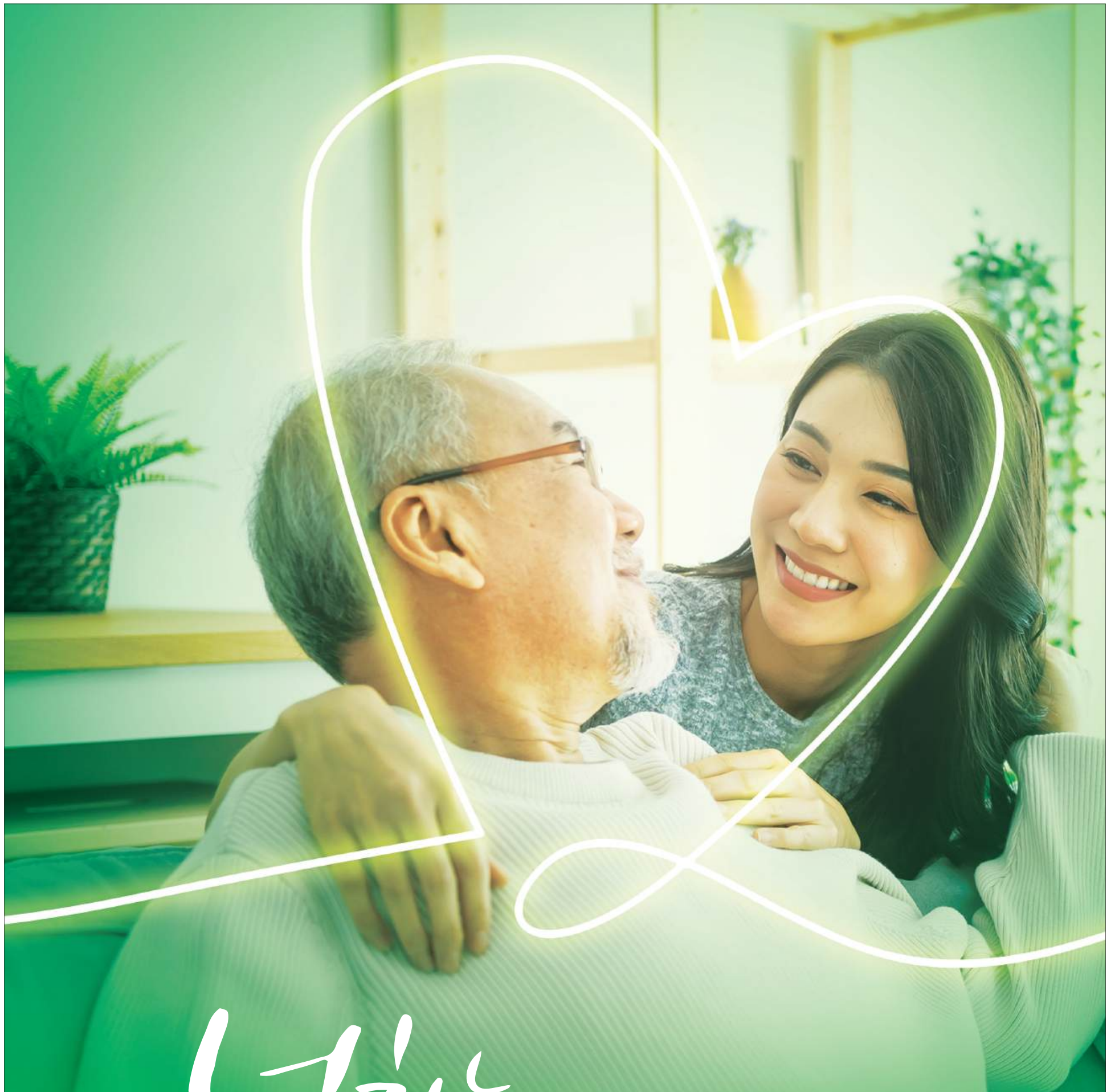
전도자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일성으로 화두를 던집니다. 허무를 말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는 아닙니다. 전도자는 역설과 반전이라는 독특한 화법을 통해 세상은 알 수 없고 그래서 줄수도 없는 그리스도, 그 희망을 노래합니다.

**도서주문**  
 도서구입문의(미주지역) : ☎(657)631-8775(담당자 헬렌)  
 온라인 주문 : 평생교회(lifetimechurch.us) 홈페이지에서 가능

**책 구입처**  
 복음사(OC) ☎(562)865-4949  
 기독교서적센터(LA) ☎(323)737-7699







# 넘치는 사랑 감사입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오래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부모님의 건강은 크고 튼튼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믿을 수 있는 최고의 한인 의료진들이  
30년 이상의 노하우로 정성껏 돌봐드립니다.

Seoul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